

특집 2 : 2007년 바람과 희망의 메시지 2



사서교사도
임용대박이 터지길 바랍니다



문 동 섭

대구산업정보대학도서관 사서
moonds75@naver.com

지난 2006년을 돌이켜 봤을 때, 제가 가장 부러웠던 순간을 꼽자면 2007년 영양교사를 1,700명 선발한다는 발표를 들었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비교과교원인 사서교사 TO는 106명에 불과한데 그에 비해 영양교사는 엄청나게 많이 선발한다고 해서 상대적으로 부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동안 사서교사 임용이 2006년 154명을 제외하면 늘 부족했기 때문에 106명도 다행스럽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서교사 역시 영양교사와 마찬가지로 1개 학교에 1명 이상 배치가 필요하다는 점과 현재 전국 사서교사 배치율이 5%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106명은 무척이나 아쉽습니다.



제가 대학도서관에 몸담고 있지만 취업 때문에 힘들어하고, 부족한 TO로 사서교사의 꿈을 접어야 하는 후배들을 볼 때마다, 또 도서관 시설은 잘 갖춰져 있지만 그것을 운영할 전문인력이 없어 학교도서관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2007년에는 사서교사도 영양교사처럼 획기적으로 많이 임용되기를 간절히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대학도서관, 공공도서관, 전문도서관 등의 인력상황도 도서관을 좀 더 발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실정이지만 예산 및 제도상의 문제 또는 구조조정 등 여러가지 현실적 문제로 긍정적인 고용창출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감원 및 비정규직화를 걱정해야 할 처지입니다. 반면에 학교도서관은 고용창출에 있어서만큼은 여전히 미개척 분야라 할 수 있습니다. 2006년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학교도서관 수는 9,397개에 이릅니다. 하지만 사서교사 수는 414명(2006년에 임용된 154명 미포함)에 불과합니다. 학교도서관은 있으나 이를 전문적으로 운영할 사서교사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사회적으로 전인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독서 및 논

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학교도서관과 사서교사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사서교사 배치의 좋은 명분이 될 수 있기에 희망적입니다.

만일 2007년에 사서교사가 1,700명이 임용된다면 어떨까요? 아니 매년 200명 정도라도 꾸준히 임용이 된다면 어떨까요? 상상만 해도 흥분이 됩니다. 사서교사를 꿈꾸는 많은 문헌정보학도들이 희망을 갖고 좀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를 계기로 도서관계 전체적으로는 역동성과 생동감을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뱃그릇’을 챙기자는 차원에서 사서교사 임용확대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교육은 학생들을 대학서열의 좀 더 상위권으로 보내고, 나아가 사회 상류층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수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학생들 역시 냉혹한 무한경쟁을 펼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살벌한 교육환경에서 학교도서관은 학생들에게 자율적 학습과 사색 그리고 휴식을 보장해 주는 공간입니다. 여기에 사서교사의 전문성이 더해진다면 교과교육을 좀 더 충실하게 해 줄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독

서 및 논술지도도 가능해집니다. 또한 학생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도 효율적으로 해소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사서교사는 학생들의 지적, 정서적, 사회성 발달을 돕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육적 의미에서도 2007년부터는 사서교사 임용확대가 보다 전폭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꿈이 있다면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한 실제적 행동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람과 희망만 가진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서교사 임용확대를 위해서 우리 도서관인들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먼저 도서관계에 팽배해 있는 패배주의를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사서교사 임용은 왜 지지부진할까?'라는 질문을 학교도서관 관계자뿐만 아니라 여러 도서관인들에게 자주 던져봅니다. 그럴 때마다 돌아오는 대답은 대부분 부정적입니다. '교원 총정원제 때문에', '교육청에서 TO를 없애버리는데', '우리는 영향력이 약해서', '단합이 안돼서' 등의 원인을 지적하지만 끝에는 꼭 '해봐야 안 된다'는 비관적 한탄으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도서관과 도서관인들이 그동안 사회적으로 소외받아 왔던 상처 때문에 생긴 패배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긍정적 사고'의 힘을 말하지 않더라도 모든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마

간절히 바라는 꿈이 있다면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한 실제적 행동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람과 희망만 가진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음가짐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이룬다'라고 생각하며 일을 추진해도 힘이 드는데 '해봐야 안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이럴 때 흔히 '될 일도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도서관인들 마음속에 자라고 있는 패배주의를 반드시 떨

쳐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서관인들의 관심과 연대가 필요합니다.

제가 대학도서관 사서로 학교도서관 문제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 주변으로부터 '학교도서관 일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오지랖도 넓다'는 소리를 종종 듣습니다. 저는 이런 시선들이 도서관 종만 달리하면 무슨 일이 있는지도 모르는 무관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관심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서교사의 주도적 역할로 도서관 이용을 습관화한 학생들은 성장해서도 도서관을 찾게 됩니다. 장기적 안목으로 보자면 학교도서관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 등 모든 도서관의 잠재적 이용자를 만들어내는 곳이기 때문에 관중을 초월하여 학교도서관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과거 권위주의 정권시절 대학 운동권이 외치던 낡은 구호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지향해야 할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의 사서교사만 임용확



대를 외치는 것보다 다른 관종의 사서, 문헌정보학과 교수, 학생이 함께 외치는 것이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관종과 신분을 초월하여 모든 도서관인들이 사서교사 임용확대에 관심을 가지고 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서교사 임용확대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2006년은 예년에 비해 교원임용에 대한 사회적 파장이 무척이나 컸습니다. 초등교원 임용축소에 전국 교육대학교 학생들은 반대집회와 수업거부 운동을 펼쳤으며, 상담교사 임용축소에도 관련 학과 학생 및 관계자들이 반대운동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수급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상담교사 임용규모도 당초 계획보다 늘어났습니다. 즉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하고, 원하는 바를 지속적으로 주장하면 결국에는 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우리 도서관계에도 있습니다.

지난 2005년, 사서교사 TO가 '0명'으로 발표되자 전국 일선 사서교사는 물론 도서관 단체, 문헌정보학과 교수, 학생들이 서울 광화문에 집결하여 사서교사 배치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습니다. 그 후 다들 아시다시피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인 214명의 TO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도서관인들이 강하게

주장했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던 결과였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우리는 사서교사의 필요성과 배치의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강하게 주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2007년 희망과 그 희망을 이루기 위해 해야 할 노력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서교사 임용확대는 저뿐만 아니라 도서관계 전체가 간절히 바라는 희망입니다. 또 제가 한 이야기 역시 도서관인이란 누구나 알고 있고, 마음속에 담아 두었던 속내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소중한 이 지면을 통해 이야기 하는 것은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염원을 실현할 수 없고, 알고 있는 바를 실제적 행동으로 옮겨야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밝아 온 2007년에는 보다 많은 도서관인들이 사서교사 임용확대를 위해 온 몸과 마음으로 노력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사서교사도 영양교사처럼 임용 대박이 터지길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2007)